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투자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국내의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 듀레이션을 결정한 후,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 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을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

- 수익률 제고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추구를 위하여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 유니버스 내에서 신용도 개선이 예상되거나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 또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3억 원

-퇴직연금코리아증권모1(채권) 932억 원

펀드유형 채권형, 모자형, 종류형  
- 모투자신탁 편입비: 60% 이상  
- 모투자신탁 채권편입비: 70% 이상(단, 국공채에서의 투자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08년 07월 29일)

- 클래스 A : 2010년 10월 19일
- 클래스 C : 2010년 02월 04일
- 클래스 C-E : 2009년 09월 0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3년 05월 13일
- 클래스 C-W : 2010년 02월 08일
- 클래스 S : 2017년 01월 03일
- 클래스 S-P2 : 2018년 01월 24일

벤치마크 매경BP종합(국공채) 6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30% + Call 1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3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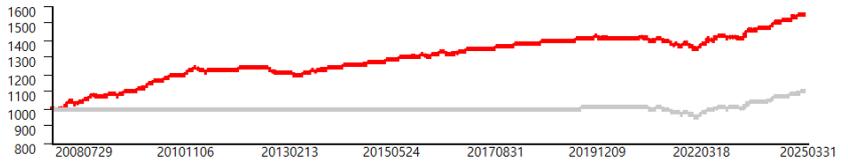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15%	1.41%	2.37%	5.62%	9.59%	12.24%	10.77%	55.08%
클래스 A	0.10%	1.27%	2.08%	5.01%	8.33%	10.31%	7.60%	23.83%
클래스 C	0.08%	1.23%	2.00%	4.85%	8.01%	9.82%	6.80%	28.80%
클래스 C-E	0.09%	1.26%	2.05%	4.96%	8.23%	10.15%	7.35%	31.34%
클래스 C-P2(연금저축)	0.09%	1.26%	2.05%	4.96%	8.23%	10.15%	7.34%	16.99%
클래스 C-W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클래스 S	0.11%	1.32%	2.18%	5.22%	8.77%	10.98%	8.70%	14.49%
클래스 S-P2	0.13%	1.36%	2.26%	5.37%	9.04%	11.33%	9.13%	13.08%
벤치마크	0.16%	1.36%	2.37%	5.67%	9.99%	11.89%	-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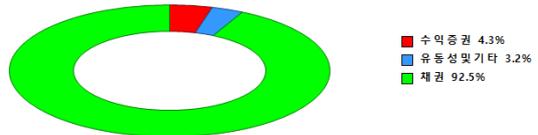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설정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5년 03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전체>



<채권 종류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5년 03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채권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국고03875-2612(23-10)	17.7	국고02375-2703(22-1)	5.3
아이비케이캐피탈302-5	7.7	롯데카드480-3	4.4
국고03750-3312(13-8)	5.8	롯데캐피탈263	4.3
경기주택도시공사22-12-53	5.4	국고01875-2606(16-3)	4.3
JB 우리캐피탈530-4	5.4	국고채권01375-3006(20-4)	4.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0.5825% (판매 0.35%)
- 클래스 C : 총 연 0.7325% (판매 0.5%)
- 클래스 C-E : 총 연 0.6325% (판매 0.4%)
- 클래스 C-P2(연금지출) : 총 연 0.6325% (판매 0.4%)
- 클래스 C-W : 총 연 0.2325% (판매 0%)
- 클래스 S : 총 연 0.3825% (판매 0.15%)
- 클래스 S-P2 : 총 연 0.3525% (판매 0.12%)

(공통사항)

운용 0.2%, 신탁 0.02%,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C, C-E, C-P2, C-W: 없음

**한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전월 미국 채권시장은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가 혼재되며 등락했습니다. 월초 2월 ISM 제조업지수가 예상치 하회와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미10y 금리가 4.15%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나, 파월 의장의 경기침체 가능성 일축, 월 중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 발표 이후 인플레이 경계심 재부각으로 4.3%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후 3월 FOMC에서 QT 규모 축소 결정, 파월 의장의 도비쉬한 기자회견 등으로 미 국채금리는 다시 4.2%대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채권시장은 미 관세정책 영향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경 논의 재개와 함께 2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가계대출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금통위 우려 확인 등 2분기 금리인하 기대 조정으로 국고채 금리가 전월대비 소폭 반등했습니다. 미 관세정책 및 현재 선고 일정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월중 달러 환율 상승 압력 나타난 것 또한 채권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대비 포함인 2.560%, 국고채 10년 금리는 전월대비 6.7bp 상승한 2.767%로 마감했습니다.

펀드 듀레이션은 평가 기간 중 BM대비 100% ~ 105% 수준에서 운용하였으며, 월 중 시장 장기물 중심 금리 상승한 가운데 듀레이션 월 후반 추가 확대로 듀레이션 전략은 BM 수준 성과를 보였습니다. 장단기 스프레드가 월 중 확대된 가운데 2~32년 구간 U/W 포지션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크레딧의 경우 중립 수준 성과를 기록하였으며, 종목 효과의 경우 국고채 30년 비지표 종목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연준은 3월 FOMC에서 올해 경제성장을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고 물가전망치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지속으로 인해 심리부진과 실물경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인플레이 수준은 높게 유지되며 당분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근 소매판매 둔화와 제조업 지수 약세가 확인되고 있어, 고용지표 둔화가 확인되면 금리 하락 요인이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는 추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내 지표 둔화세가 확인되고 있고 4월초 본격적으로 시행될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개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한국은행의 추가 인하 기대가 지속될 점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만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달러-원 환율 상승 흐름은 금리하락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결정 이후 추경 시기나 규모, 금융 시장 여건에 따라 금통위 전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 3년 2.45~2.70% 전망, 국고10년 2.65~2.90% 전망하며, 듀레이션 확대 대응 유지할 계획입니다.

수익률 곡선은 연준은 3월 FOMC에서 올해 기준금리 2회 인하 스탠스를 유지했으며, 2분기 중 신정부 정책의 반영된 경기 지표를 확인한 이후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국내는 2월 금통위 이후 현재 추가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반영된 레벨로, 2분기 중 금리 인하시 4월보다는 5월 인하 가능성이 우세함에 따라 중단기물의 추가 금리하락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장기물의 경우 분기중 장기투자기관의 우호적 수급 및 국내 펀드멘탈 추가 둔화 우려는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산불 복구 등을 위해 시장 예상보다 적은 필수 추경 10조원 규모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집행 시기나 규모는 현재 결정 이후 정해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는 장단기 스프레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국고 10-3년 스프레드 10~30bp, 국고 30-10년 스프레드 -30~-15bp 전망하며, 박스권 상하단 접근 시 탄력적 대응 계획입니다.

크레딧 시장은 5월 금리 인하 기대감 속 크레딧물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트럼프 2기 관세 불확실성 지속되는 가운데, 신용스프레드 레벨 부담 속 1분기 실적 경계감으로 소폭 약세가 예상됩니다. 부동산PF 3차 사업성 평가가 양호한 수준이고 레포펀드의 견조한 매수세 등을 감안할 때 4월에도 여전히 수급은 견조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4월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이거나, 미국발 통상압력은 회사채 시장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특수/국고 3y Spread 20~30bp, 은행/국고 3y Spread 25~35bp, 회사AA-/국고 3y Spread 50~60bp 전망하며,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약세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현 수준 이상의 강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일드 메릿과 펀드멘탈이 양호한 종목 위주로 선별적 매수 및 BM 대비 확대 운용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적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